

청혈강기탕 및 갈근해기탕으로 호전된 태음인 만성 두드러기 치험 1례

유현지¹ · 이준희^{1,2,*}

¹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Case Report of Chronic Urticaria in a Taeummin Patient Improved with Cheonghyeolganggi-tang and Galgeunhaegi-tang

Hyeon Ji Yu¹ · Jun Hee Lee^{1,2,*}

¹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²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To report the clinical course of a Taeummin patient with chronic urticaria treated wit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ethods

A 37-year-old woman with chronic urticaria refractory to antihistamines and omalizumab was treated from April to November 2025.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she was diagnosed with Taeummin Ganyeol-paejo disease and treated with Cheonghyeolganggi-tang, Galgeunhaegi-tang, and acupuncture. Outcomes included the Urticaria Activity Score over 7 days (UAS7), pruritus Numeric Rating Scale (NRS), Chronic Urticari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U-Q2oL), antihistamine use, and serum total IgE.

Results

UAS7 decreased from 29 to 2, pruritus NRS from 8 to 1, and CU-Q2oL from 93 to 29. Antihistamine use was discontinued, and serum total IgE decreased from 402 to 100 IU/mL. No adverse events occurred.

Conclusion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ay improve symptoms, quality of life, and reduce medication use in chronic urticaria.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its effectiveness and safety.

Key Words : Chronic urticari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aeummin, Case reports

Received 23, June 2026 Revised 24, June 2026 Accepted 08, July 2026

*Corresponding author : Junhee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 2 958 9280, Fax: +82 2 958 9234, E-mail: ssljh@khu.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 and Immune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서론

만성 두드러기(chronic urticaria)는 팽진, 혈관부종 또는 이 둘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의되며, 진단은 주로 상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기본 검사 및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¹. 만성 두드러기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증상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 감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². 또한, 중등도 이상의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환자의 일상생활과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³.

만성 두드러기의 약물치료는 증상의 완전한 조절을 목표로 하며, 현재 국제 진료지침에서는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를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⁴.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에도 증상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재발이 반복되며, 장기적인 약물 사용에 따른 한계가 있어 보완적인 치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⁵.

한의학에서는 두드러기를 蕁麻疹, 癰疹, 風疹塊, 風痧, 風塊癰疹 등의 범주로 인식하며, 風, 熱, 濕, 血虛 등을 주요 병인으로 보고 변증에 따라 한약, 침구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⁶.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두드러기를 치료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 김⁶ 등은 소양인 환자의 급성 두드러기 증례를 보고하였으며, 이⁷ 등은 태음인 만성 두드러기 치험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증례들은 대부분 임상 증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면역학적 지표를 함께 평가한 보고는 부족하였다. 이에 저자는 항히스타민제 및 Omalizumab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 태음인 만성 두드러기 환자 1례에 대하여 사상체질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여 유의한 임상적 호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증례

2021년 두드러기 발생 후 항히스타민제 복용하며 증상을 관리하던 37세 여자 환자가 증상 지속을 주소로 202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사상의학적 치료를 시행하며 치료 경과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의무기록 검토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및 연구를 승인받았다. (승인번호 : KOMCIRB 2026-06-003)

1. **환자:** 유○○, 여성, 37세

2. **치료 기간:** 2025년 4월 15일 ~ 2025년 11월 21일 (221일간)

3. **주소증:** 두드러기

1) **유발요인:** 환절기,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등의 온도 변화

2) **증상 지속기간:** 6주 이상(만성)

3) **하루 평균 개수:** 20개

4) **지속시간:** 1-3시간

5) **크기:** 1-3 cm

6) **가려움:** NRS 8, 가려움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

7) **따가움:** NRS 6, 따가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감 있음

4. 현병력

특정 물질과의 접촉 없이 2021년 8월부터 두드러기 발생하였고,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완화되었으나 2024년 9월 증상이 악화되어 타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MAST 검사상 별무소견이었으며, 현재 항히스타민제 경구약 매일 복용 중이고, 1회/2-3주 간격으로 주사제 투약 중에도 증상 지속되어 한의치료 위해 2025년 4월 15일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외래 내원하였다(Table 1).

Table 1. Medications for Chronic Urticaria before Korean Medicine Treatment

Medication	Class	Dose
Allegra tab 180 mg	Antihistamine	1T QD
Aerius tab	Antihistamine	1T QD
Beposta SR tab	Antihistamine	1T QD
Lerizine tab 5 mg	Antihistamine	1T QD
Famofang OD tab 20 mg	H ₂ receptor antagonist	1T QD
Xolair Inj	Anti-IgE monoclonal antibody	Every 2-3 weeks

5. 과거력

- 1) 병력: 없음
- 2) 수술력: 제왕절개[2021.04.]

6. 사회력

- 1) 직업: 교사
- 2) 음주력: 주 1-2회*맥주 1캔.
- 3) 흡연력: 없음

7. 내원 시 검사소견

- 1) MAST 검사(2025.04.21.): 음식 및 흡입성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 IgE는 모두 음성이었다.

8. 사상체질진단

1) 체형기상

키 158 cm, 체중 58 kg의 BMI(Body Mass Index) 23.23 kg/m²의 과체중으로 체형이 큰 편이고, 골격에 비해 팔다리가 가늘다.

체간측정(8부위, cm) : 54-33-88-91-83-79-84-88

2) 용모사기

눈이 길고 전반적으로 온화한 인상을 보였다. 얼굴 색은 다소 어두운 편이며, 안면부에 면포의 흔적이 관찰되었고, 양쪽 관골 부위에 홍조가 있었다. 음성은 저음이며 말수가 적고 속도가 느린 편이다.

3) 성질재간

내향적인 성격이며, 맡은 일에 대해 끈기가 있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4) 소증

- (1) 수면 : 9시간 가량 수면하며, 수면장애는 없다.
- (2) 대변 : 3일에 1회 배변하며, 시원하지 않은 느낌으로 복부 불편감 있다. 특히 여행 중 변비 경향 악화된다.
- (3) 소변 : 타인에 비해 적게 보는 편이다.
- (4) 식욕소화 : 식욕은 좋으며, 식사량도 많고 간헐적으로 야식을 먹는 편이다. 소화 관련 불편감은 없다.
- (5) 구갈음수 : 입 마른 증상은 거의 없으며, 음수량은 적고, 차가운 물을 선호한다.
- (6) 한출 : 조금만 덥거나 답답해도 전신에 땀이 나는 편이다.
- (7) 한열 : 더위에 예민하며, 손발에 열감이 있다.
- (8) 기타 : 아침 기상시 두면부 부종이 관찰되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간헐적으로 발

생한다.

(9) 설진 : 설담홍, 태후백

(10) 맥진 : 맥침

5) 체중 : 성인 이후 최고 체중은 60 kg였으며, 평균 체중은 58 kg 내외로 유지하였다.

6) 사상체질진단지(QSCC II+) : 太陰人

7) 종합체질진단 : 환자의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정과 소증 및 설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太陰人으로 진단하였다.

III. 치료 및 경과

1. 치료방법

1) 한약치료

202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제팀에서 조제한 청혈강기탕 및 갈근해기탕 과립제를 복용하였다(Table 2). 청혈강기탕은 갈근 3.02g, 황금, 고본, 연자육, 산약 각 1.51g, 내복자 길경, 승마, 백지, 대황, 맥문동, 천문동, 원지, 석창포, 산조인(초), 용안육 각 0.75g, 백자인, 감국 각 0.38g으로 구성되었으며, 갈근해기탕은 갈근 4.79g, 승마 3.19g, 행인, 황금 각 2.39g, 산조인(초), 대황, 길경, 백지 각 1.6g로 구성되었다.

2) 침 치료

외래 내원하여 치료 시 일회용 스테인리스 호침(0.25X30 mm, Dong Bang Acupuncture Inc, Korea)을 사용하여 각 혈자리에 약 10-15 mm 깊이로 자침하였다. 폐정격의 태백(SP3), 태연(LU9) 보법과 소부(HT8), 어제(LU10) 사법을 사용하였고, 합곡(LI4), 양측 풍지(GB20)혈 등에 추가로 시술하였다. 침 치료는 1~2주 간격으로 시행하였으며, 매회 20분간 유침하였다.

2. 치료경과

1) Chronic Urticari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U-Q2oL)

만성 두드러기로 인한 삶의 질은 Chronic Urticari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U-Q2oL)를 이용하여 치료 전후로 평가하였다. CU-Q2oL은 만성 두드러기에 특화된 삶의 질 평가도구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저하가 심함을 의미한다⁸. CU-Q2oL 총점은 치료 전 93점에서 치료 후 29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Pruritus, Swelling, Daily activities, Sleep problems, Limits 및 Looks 영역 모두에서 점수 감소가 확인되었다(Table 3).

2) Urticaria Activity Score over 7 days (UAS7) & Total Immunoglobulin E (IgE)

두드러기 활성도는 Urticaria Activity Score over 7 days (UAS7)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UAS7은 팽진 수

Table 2. Herbal Prescriptions Administered during Treatment

Period	Prescription
2025.04.15.-04.27.	Cheonghyeolganggi-tang TID
2025.04.28.-05.25.	Cheonghyeolganggi-tang BID + Galgeunhaegi-tang QD
2025.05.26.-09.18.	Galgeunhaegi-tang BID
2025.09.19.-11.05.	Cheonghyeolganggi-tang QD + Galgeunhaegi-tang QD
2025.11.06.-11.21.	Galgeunhaegi-tang QD

와 가려움 정도를 각각 0점에서 3점까지 평가한 후 7일간 합산한 점수로, 총점은 0점에서 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 활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⁹⁾. UAS7는 치료 전 29점에서 2025년 9월 12일 13점, 치료 종료 시점인 2025년 11월 21일 2점으로 감소하였다 (Table 4).

Table 3. Changes in Chronic Urticari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U-Q2oL) Scores

Domain	Baseline	Post-treatment
Pruritus	9	3
Swelling	4	2
Daily activities	25	7
Sleep problems	19	7
Limits	14	3
Looks	22	7
Total score	93	29

Table 4. Changes in Urticaria Activity Score over 7 Days (UAS7) and Serum Total IgE Levels

Date	Score	IgE (IU/mL)
04.15.	29	402
09.12.	13	156
11.21.	2	100

혈청 Total Immunoglobulin E (IgE)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흔히 상승하며, 질병 활성도 및 질환의 지속과 관련된 생체표지자로 제시되고 있다¹⁰. 본 환자의 혈청 Total IgE 수치는 2025년 4월 15일 402 IU/mL에서 2025년 9월 12일 156 IU/mL, 2025년 11월 21일 100 IU/mL로 감소하였다.

3) Numeric Rating Scale(NRS) 및 약물 사용량의 변화

가려움 정도를 평가한 Numeric Rating Scale(NRS)은 치료 초기 8점에서 치료 종료 시 1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항히스타민제 복용 개수는 치료 초기 4개에서 치료 종료 시 0개로 감소하였다(Figure 1).

IV. 고찰 및 결론

두드러기는 혈관 확장, 혈류 증가 및 혈관 투과성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용기된 홍반성 팽진과 소양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6주를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을 구분한다¹⁾. 진단은 주로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병력 청취와 신체진찰이 중요하다. 본 증례의 환자는 2021년 8월부터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며 증상을 조절하였으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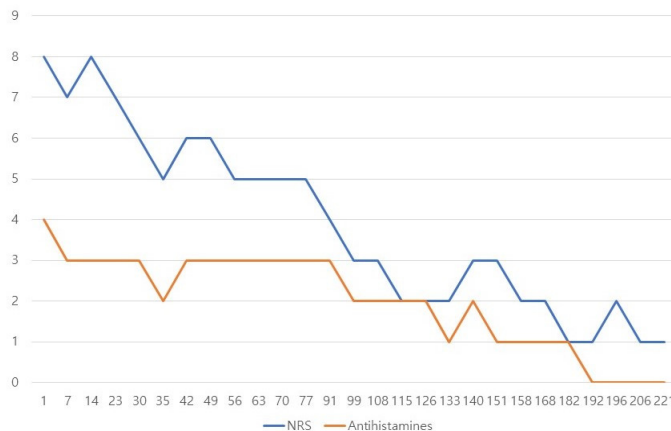


Figure 1. Changes in numeric rating scale (NRS) scores and the number of antihistamines

년 9월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 MAST 검사상 총 IgE는 증가되어 있었으나 특이 IgE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항히스타민제 및 Omalizumab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두드러기와 소양감이 6주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만성 두드러기로 판단하였다.

만성 두드러기의 병태생리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만세포의 활성화와 탈과립에 따른 히스타민 및 염증매개물질의 분비가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IgE에 대한 자가항체와 IgE 매개 자가알레르기(autoallergy) 기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². 현재 만성 두드러기의 표준치료는 2세대 H1 항히스타민제를 기본으로 하며,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항히스타민제 증량, H2 수용체 길항제 또는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의 병용, Omalizumab 및 Cyclosporine 등의 단계적 치료가 권고된다¹³.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치료 중단 후 재발이 발생하여 질환의 근본적인 병태생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¹⁴. 이러한 배경에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대체 치료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¹⁵ 등은 가감통청산을 투여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UAS 및 CU-Q2oL의 개선을 보고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변증에 따른 한약 및 침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 두드러기의 주요 병태생리가 면역계의 과민반응 및 면역조절 이상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질 및 병증에 따라 保命之主를 보존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사상의학적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⁵. 이에 太陰人 肝熱肺燥病 처방인 청혈강기탕을 투여하였으며, 두드러기 증상의 호전뿐 아니라 대변, 수면, 땀 등의 소증도 함께 개선되었다. 특히 부종과 정종 등의 증상이 먼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太陰人 肝熱肺燥病의 병증이 점차 완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병증의 변화를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혈강기탕에서 갈근해기탕으로 처방을 변경하였다. 청혈강기탕은 肝熱肺燥病의 전반적인 병증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갈근해기탕은 이후 병증의 변화를 반영하여 잔존하는 피부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운용하였다. 갈근해기탕은 傷寒陽毒에 활용된 처방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태음인의 열증과 피부 반진을 동반하는 증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¹⁾. 청혈강기탕과 갈근해기탕은 太陰人 肝受熱裏熱病 처방으로, 피부질환에 대한 적용이 보고되어 왔다. 이¹⁶ 등은 太陰人 만성 시멘트 접촉 피부염 환자에서 청혈강기탕 투여 후 피부 증상의 호전을 보고하였으며, 갈근해기탕을 활용한 대상포진 치험례에서도 피부 병변 및 통증의 개선이 보고된 바 있다¹⁷.

본 증례에서는 임상 증상의 개선뿐 아니라 혈청 Total IgE 수치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만성 두드러기에서 IgE 및 비만세포 활성화는 중요한 병태생리로 알려져 있으며, 갈근해기탕의 주약인 갈근은 TNF- α , IL-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¹⁸. 또한, 청혈강기탕과 갈근해기탕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황금은 비만세포 매개 알레르기 반응과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알려져 있다¹⁹. 이러한 작용은 본 증례에서 관찰된 임상 증상의 호전 및 혈청 Total IgE 수치의 감소와 일정 부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상기 환자는 항히스타민제 4종과 H2 수용체 길항제 및 Omalizumab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약 7개월간 사상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치료 후 UAS7은 29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였고, CU-Q2oL 총점은 93점에서 29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소양감에 대한 NRS는 8점에서 1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치료 전 약 4종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였으나 치료 종료 시에는 모든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혈청 Total IgE 수치

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13-1 “朱肱曰 陽毒 面赤斑 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及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尚緩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또한 402 IU/mL에서 100 IU/mL로 감소하였다. 치료 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상의학적 치료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증상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약물 사용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단일 증례에 대한 후향적 관찰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한약 치료와 침 치료가 병행되어 각 치료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전향적 연구를 통해 사상의학적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참고문헌

1. Zuberbier T, Abdul Latiff AH, Abuzakouk M, Aquilina S, Asero R, Baker D, et al. The international EAACI/GA²LEN/EuroGuiDerm/APAAACI guideline for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urticaria. *Allergy*. 2022; 77(3):734-766. DOI: 10.1111/all.15090.
2. Kolkhir P, Bonnekoh H, Metz M, Maurer M. Chronic spontaneous urticaria: a review. *JAMA*. 2024;332(17):1464-1477. DOI: 10.1001/jama.2024.15568.
3. Berberi G, Maazi M, Prosty C, McMullen EP, Fein M, Lima H, et 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hronic urticar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Allergy Clin Immunol Pract*. 2025;13(9):2317-2328. DOI: 10.1016/j.jaip.2025.03.049.
4. Zuberbier T, Aberer W, Asero R, Abdul Latiff AH, Baker D, Ballmer-Weber B, et al. The EAACI/GA²LEN/EDF/WAO guideline for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urticaria. *Allergy*. 2018;73(7):1393-1414. DOI: 10.1111/all.13397.
5. Kim HH, Choi JH, Park SY, Kim JH, Jung MY, Lim KM, et al. A clinical case report of chronic urticaria treated with Gagamtongcheong-sa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4):189-198. DOI: 10.6114/jkood.2016.29.4.189. (Korean)
6. Kim JH, Son HB, Bae HS, Park SS. A case study of a Soyangin patient with fever pattern of malaria by acute urticaria. *J Sasang Constitut Med*. 2014; 26(1):122-132. DOI: 10.7730/JSCM.2014.26.1.122. (Korean)
7. Lee J, Lee MJ, Hwang M. A clinical case report set of pattern of Soyangin Yin collapse and Taumin dryness-heat diagnosed with chronic urticaria. *J Sasang Constitut Med*. 2022;34(2):84-96. DOI: 10.7730/JSCM.2022.34.2.84. (Korean)
8. Baiardini I, Pasquali M, Braido F, Fumagalli F, Guerra L, Compalati E, et al. A new tool to evaluate the impact of chronic urticaria on quality of life: chronic urticaria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U-QoL). *Allergy*. 2005;60(8):1073-1078. DOI: 10.1111/j.1398-9995.2005.00833.x.
9. Weller K, Groffik A, Church MK, Hawro T, Krause K, Metz M,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Urticaria Control Test: a patient-reported outcome instrument for assessing urticaria control. *J Allergy Clin Immunol*. 2014;133(5):1365-72.e1-6. DOI: 10.1016/j.jaci.2013.12.1076.
10. Altrichter S, Fok JS, Jiao Q, Kolkhir P, Pyatilova P, Romero SM, et al. Total IgE as a marker for chronic spontaneous urticaria.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21;13(2):206-218. DOI: 10.4168/aair.2021.13.2.206.
11. Powell RJ, Leech SC, Till S, Huber PAJ, Nasser SM, Clark AT. BSACI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chronic urticaria and angioedema. *Clin Exp Allergy*. 2015;45(3):547-565. DOI: 10.1111/cea.12494.

12. Church MK, Kolkhir P, Metz M, Maurer M. The role and relevance of mast cells in urticaria. *Immunol Rev.* 2018;282(1):232-247. DOI: 10.1111/imr.12632.
 13. Schaefer P. Acute and chronic urticaria: evaluation and treatment. *Am Fam Physician.* 2017;95(11):717-724.
 14. Maurer M, Rosén K, Hsieh HJ, Saini S, Grattan C, Giménez-Arnau A, et al. Omalizumab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idiopathic or spontaneous urticaria. *N Engl J Med.* 2013;368(10):924-935. DOI: 10.1056/NEJMoa1215372.
 15. Lee JW, Kim JY, Oh HW, Lee EJ, Koh BH, Lee JH. A case study of Taeumin patient with eosinophilic colitis treated with Yeoldahanso-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15;27(4):436-443. DOI: 10.7730/JSCM.2015.27.4.436. (Korean)
 16. Kang KW, Kim MJ, Kang SY. A case study of chronic contact dermatitis from cement, treated with Taeumin Cheonghyeolgangki-tang. *J Int Korean Med.* 2015;36(1):49-57. (Korean)
 17. Noh W, Lee KY, Yu JS. A case report of herpes zoster patient with post-herpetic neuralgia improved by Galgunhaegui-tang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J Sasang Constitut Med.* 2023;35(4):105-115. DOI: 10.7730/JSCM.2023.35.4.105.
 18. Zhou YX, Zhang H, Peng C. Puerarin: a review of pharmacological effects. *Phytother Res.* 2014;28(7):961-975. DOI: 10.1002/ptr.5083.
 19. Bui TT, Piao CH, Song CH, Lee CH, Shin HS, Chai OH. Baicalein, wogonin, and Scutellaria baicalensis ethanol extract alleviate ovalbumin-induced allergic airway inflammation and mast cell-mediated anaphylactic shock by regulation of Th1/Th2 imbalance and histamine release. *Anat Cell Biol.* 2017;50(2):124-134. DOI: 10.5115/acb.2017.50.2.124.
- <저자들의 소속 및 직위>
 유현지/경희대학교 한방병원(사상체질과)/전공의
 이준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사상체질과) · 한방병원(사상체질과)/교수